

일본, 태양전지에 1조3000억원 투자

Showa Cell, 일본 최대 태양전지 공장 건설 ... 2011년까지 90만kw

Showa Cell이 약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본 최대의 태양전지 공장 건설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 현지언론은 Showa Cell이 1000억엔(약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본 최대의 태양전지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9월8일 보도했다.

Showa Cell은 Miyazaki에 1000억엔을 투입해 2011년까지 90만kw의 태양전지 공장을 세우기 위해 히타치(Hitachi)의 플라즈마 패널 공장을 인수해 태양전지 공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본 최대 태양전지 생산기업 샤프(Sharp)의 71만kw를 상회하는 것으로 Showa Cell은 현재 Miyazaki에서 태양전지 공장 2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8만kw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08>